

제주 내년 살림살이 더 팍팍해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 따른 취득·재산세 증가 속 소비부진으로 지방소득세 전년 대비 50% 감소 기업 유치 한계... 다양한 세수 확충 방안 절실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취득세와 재산세는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 15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조 465억원보다 1038억원 증가했다. 세부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세로 불리는 취득세는 356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2899억원보다 670억원 증가

했다. 재산세는 581억원으로 전년 동기 569억원보다 12억원 늘었다. 이는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공시지가는 8.34% 올랐다. 전년도 제주지역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48% 상승했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제주시 4.0%, 서귀포시 5.03% 올랐다. 올들어 이달 현재까지 제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15.65%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12.01%를 넘어섰다. 자동차세는 913억원으로 전년 동

기 756억원보다 157억원 늘었다. 지방교육세도 630억원으로 전년 591억원보다 39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등록면허세는 243억원으로 전년 동기 258억원보다 15억원이 줄었고, 경매 중단으로 레저세는 43억원으로 전년 동기 80억원에 비해 37억원이나 감소했다. 담배소비세도 전년 동기 401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자담배 수요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1385억원으로 전년 동기 3050억원보다 1665억원이나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부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제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2010년 신설된 지방세이다. 정부의 제주지역 지방교부세 안분율은 지난 2019년 15%에서 2020년 21%로 상승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상승과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액분으로 지방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제주도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이 정체돼 보이면서 주행분에 대한 세금만 늘고 있고 경매 중단 등으로 레저세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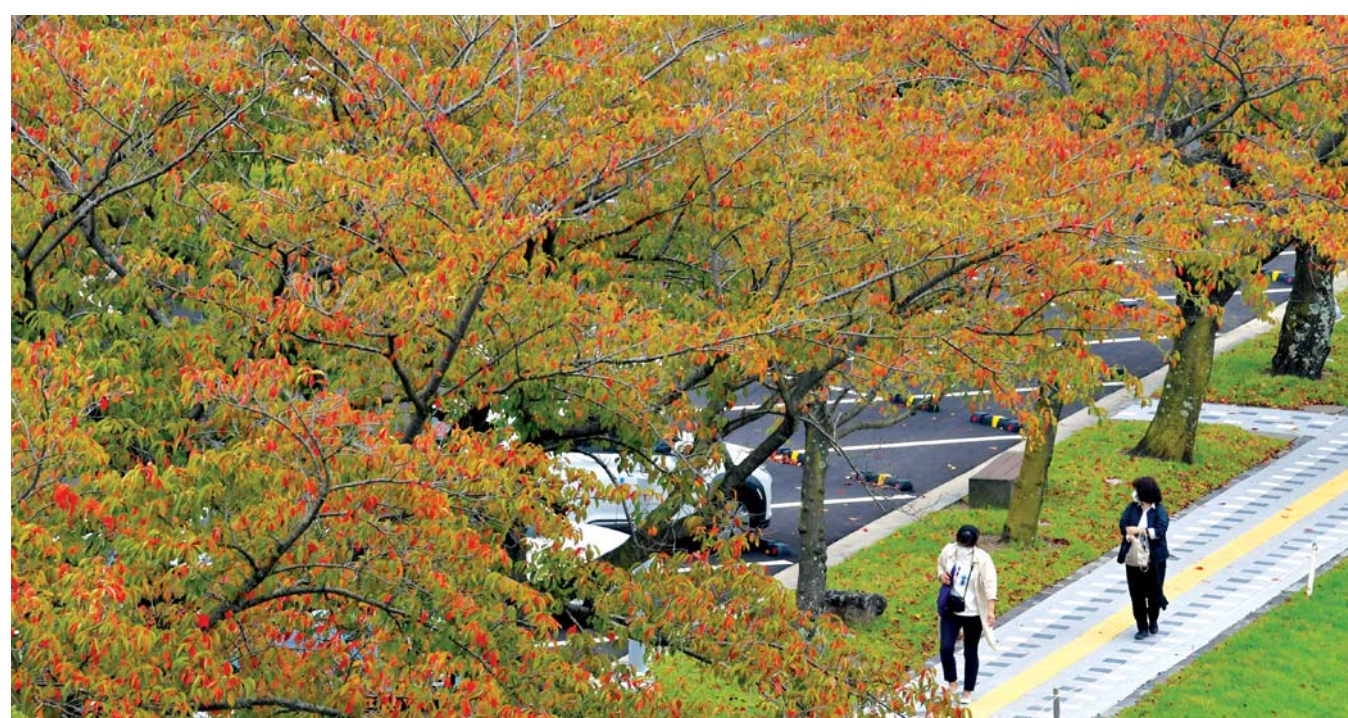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숨통 트일듯 정부, 국비 35억여원 지원... 올해보다 87% 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 5개 사업에 따른 내년도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87% 증가(16억 4300만원)한 35억 4300만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도 국비예산은 18억 9900만원이다. 2022년 바다환경지킴이 채용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올해 173명보다 58명이 많은 231명으로 증가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이 올해보다 78%(8억 9800만원) 증가한 20억 4800만원이 편성됐다. 해

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도 54%(3억 8000만원) 늘어 10억 8000만원이 반영됐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4개소에 대한 정비 예산 1억 4000만원과 처리비 예산 75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신규사업으로 추자도의 노후된 페스티로폼 감응기 교체 예산 2억원도 편성됐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의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국비 확보에도 성과가 거뒀다”면서 “선진화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청정 바다환경 보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 1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로 등록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지난달말 기준 도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주)기반이엔씨 등 5개 업체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지하 10m 이상 지하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 20m 이상은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다. 올 들어 9월말까지 35개 사업장에 대해 평가가 실시돼 지반침하 예방 등 지하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가을빛 가득한 교정 시나브로 가을이 깊어 간다. 오름에선 하얀 역새가 바람에 일렁이고, 중산간지역 초목들은 어느새 불타는 홍염으로 변신중이다. 27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교정의 빛나무가 빨간 단풍이 들어 지나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고대리기자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조사·예측·평가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제주도에 신청하면 된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하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고대리기자

4·3 보완입법 정기국회 내 처리 난항

정부 4·3연구용역 결론 지연... 10월 이후 전망 보완입법 늦어지면 확보한 예산 지급 못할수도

제주 4·3희생자 배·보상을 위한 관련 보완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 착수를 목표로 하는 보상금 지급에 차질을 빚을 지 우려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제주 4·3 희생자’ 위자료와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 8월로 용역기간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제주 4·3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위자료 등) 금액 산정 및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한 관련 입법 지원에 있다. 당초 연구용역 결과는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9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월로 연기됐다. 10월 국정감사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배보상 금액과 지급 기준·방식 등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수립하는 것이어서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연구 용역은 한 차례 홍역도 겪었다. 정부가 ‘일실이익(逸失利益)’ 방식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면 서 유족회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

실이익은 희생자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논란 이후 정액 지급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내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금액 산정과 지급 마련 기준을 담은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두 달여 남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에도 여러 변수가 있고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심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1810억원을 1차로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상황이다. 보완입법이 늦어질 경우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2854**
 27일 17시 기준

제주새마을금고

제주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판매

9월 28일 부터 한도소진시 까지

정기예금 12개월

2.3%

정기예금 18개월

2.4%

부동산 담보대출

3.1%

MG 제주새마을금고

본점 757-3425
(인화동 다나산부인과 옆)

일도지점 757-7432
(제일교 사거리)

이도지점 757-8550
(한일베라체 아파트상가)